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분석*

심진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요약]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 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전체 장애인 빈곤층의 평균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은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단기간의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비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4.6%에 그쳐 빈곤탈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요인은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나, 취업은 반드시 빈곤의 탈출로 귀결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등의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지속성 확보와 더 나은 일자리로의 상향이동 촉진,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그리고 사회안전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 근로빈곤, 빈곤동태성, 빈곤탈출, 생명표분석, 이산시간위험률분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80년대 이후 장애인 패러다임이 시혜적 차원에서 인권과 평등, 자기결정,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헌법 상 근로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최무현, 2005; 전광석, 2011; 이성규, 2011). 이에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20년간 장애인고용정책을 내실화하기 위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요약한 것임.

해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결과적 평등과 기회평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고용 관련법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의 노동시장 관련 지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는데, 2005년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인구의 3.2배였던 것이 2008년 2.5배, 2011년에는 다시 2.4배로 낮아졌다. 취업자 수는 2005년 69만 명에서 2011년 90만 명으로 30.4%가 증가하고, 취업률도 동일 시점 간 89.4%에서 92.2%로 2.8%포인트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¹⁾.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빈곤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 35.0%로 비장애인가구의 2.4배 수준이었는데(윤상용, 2010), 최근 통계청(2013)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38.9%로 높아졌으며 전체 가구의 빈곤율 17.0%의 2.3배 수준으로, 장애인 빈곤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 수와 취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사실은 장애인 근로자 중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하지 않을 정도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최근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72.5%에 그치며, 과거에 비해서도 그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²⁾

장애인이 일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실제로 근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빈곤의 새로운 형태로서의 근로빈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장애인 연구에서도 일하는 장애인의 저소득문제, 빈곤 연구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여성, 청년, 노인 등의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근로빈곤 연구와 비교해도 크게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빈곤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금재호, 2004; 이태진 외, 2004; 노대명·최승아, 2004; 홍경준, 2005; 김교성·최영, 2006; 이병희 외, 2010 등). 장애인 빈곤연구 분야에서도 장애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빈곤결정요인 및 소득이동과 빈곤지위 이동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고용과 빈곤의 관계 그리고 근로빈곤은 부수적으로 접근되어 왔다(윤상용, 2009; 김태완 외, 2010; 임재현, 2012 등). 장애인 근로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김종진(2007), 이선우(2013), 김동화(2011) 등이 있는데 중단적 자료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횡단적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안고 있거나 근로빈곤의 주요한 인과적 원인으로 논의되는 고용과의 관련성을 포괄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동태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관심은 단순한 규모추정을 넘어 빈곤이 발생하고 변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에 따르면,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실업률은 2005년에 10.6%, 3.3%이었으며, 2008년에는 8.3%, 3.3%, 2011년에는 7.8%, 3.2%로 나타나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 전체 인구의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2010년 각각 134.2만원, 194.6만원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69.0%이며, 2013년은 각각 217.1만원, 156.6만원으로 70.1% 수준이며, 2014년은 각각 223.4만원, 162.0만원으로 72.5%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2013, 2014; 통계청, 2010).

화하는 양태와 그러한 발생 및 변화의 원인에 맞추어져 있다. 빈곤의 동태성을 포착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떤 가구가 특정 시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전후의 시기를 통해서 살펴본 빈곤의 동태적 특성은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른 탈빈곤정책도 차별화되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빈곤 및 근로빈곤 연구에서 발전시켜 온 방법론에 기초해 빈곤탈출확률과 빈곤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이 빈곤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요인을 중심으로 빈곤탈출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빈곤연구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하며,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피를 촉진시키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이론 마련과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빈곤탈출

빈곤의 탈출에 관한 동태적 분석은 장기간의 빈곤지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가 구축되고 빈곤이행(poverty transition)에 관한 연구방법론이 개발되면서 가능해졌으며, 빈곤주기(poverty spell)를 활용해 빈곤지속기간과 빈곤이행의 위험도 및 빈곤이행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이병희·정재호, 2002; 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최경수, 2007; 김교성·노혜진, 2009; 김은하, 2008; 조막래·이순아, 2012; 김환준, 2013; Allison, 1984; Bane and Ellwood, 1986; Stevens, 1994). 이들 연구 중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대체로 빈곤으로의 진입과 이탈이 활발하며, 반복빈곤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광범위하게 합의된 특성 중 하나는 고용불안이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근로빈곤층은 전형적인 반복빈곤층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노동으로부터의 장기적 배제보다 잦은 고용단절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금재호, 2004; 2006; 황덕순, 2001). 마지막으로 빈곤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할 경우 빈곤기간이 길어질수록 빈곤탈출은 점차 어려워져 빈곤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이병희 외, 2006; 김교성·노혜진, 2009).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고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빈곤이행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빈곤지속기간, 빈곤탈출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향요인으로는 주로 가구주의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직업훈련 등의 인적자본요인 그리고 부양가족수, 취업가구원 수 등의 가구특성요인,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요인이 빈곤탈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Bane and Ellwood, 1986; Stevens, 1999; EFILWC, 2004; Mckernan and Ratcliffe, 2005). 국내 빈곤이행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으로 개인 특성, 가구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을 다루었으며(금재호, 2006; 김교성·최영, 2006; 노대명·최승아, 2004; 김안나,

2007; 지은정, 2007; 이병희 외, 2010), 장애인 빈곤 및 소득이동에 대한 동태적 연구인 이동영(2005), 김태완 외(2010), 장애인 근로빈곤 연구인 김종진(2007), 이선우(2013), 김동화(2011)도 그 하위변수나 측정방식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앞서 세 가지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므로 본 연구도 개인 요인, 가구요인, 경제활동요인을 비롯해 장애요인을 통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의 노동경험은 빈곤이행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취업여부(또는 근로소득의 변화)가 빈곤이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취업 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금재호, 2004; 2006; 구인회,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5; 임세희, 2006; 이병희, 2011).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연구들도 이뤄졌는데, 취업의 질은 주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직종,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취업기간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취업의 질과 관련해 가구주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할수록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의 빈곤탈출 가능성은 안정된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빈곤가구주보다 낮게 나타났다(김교성·반정호, 2004; 노대명·최승아, 2004). 그밖에 금재호(2006)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빈곤위험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병희(2011)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자리를 비공식근로(informal work)로 정의하여, 비공식근로 일자리에서 공식근로 일자리로의 전환시 빈곤탈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취업의 질이 근로빈곤의 탈출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로 근로빈곤층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옥금(2005)은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이동을 분석한 결과, 4년간 괜찮은 일자리로 10% 미만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정책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2) 장애인의 근로빈곤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주제로 한 연구는 지금까지 김종진(2007), 이선우(2010; 2012; 2013), 김동화(2011) 등이 있다. 김종진(2007)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근로빈곤을 분석했으며, 근로빈곤의 위험이 높은 장애인 근로자 계층을 발견해 내고 빈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을 취업빈곤층에 국한시켰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비롯해 근로빈곤층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비임금근로자 및 실업자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시점의 빈곤여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빈곤기간, 빈곤탈출이나 진입 등의 빈곤의 동태성을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근로 장애인의 빈곤경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선우(2013)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해 빈곤영향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가구원 중 아동 및 노인이 있는 경우 빈곤가능성이 상승되며, 사회보험급여와 개인근로소득은 근로

장애인의 빈곤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고용과 관련해서 개인근로소득 이외에 변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 등 근로빈곤의 주요한 인과적 원인으로 논의되는 고용과의 관련성은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외에 김동화(2011)는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근로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여성 근로 장애인의 고용의 질과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 연구도 횡단적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은 종단적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했으므로 빈곤 여부에 대한 정태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근로빈곤의 주요한 요인이라 간주되는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 등 경제활동 특성과 장애인 근로빈곤 간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종단적 자료를 통해 기존 연구들이 밝히지 못했던 장애인의 근로빈곤의 양상과 빈곤이행의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안정한 경험이며,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를 천착해 경제활동요인은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취업의 질의 영향을 보기 위해 종사상지위와 근로시간, 그리고 시간당소득과 직종 및 산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3.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차~6차년도(2008~2013년) 자료이다. 분석대상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조작적 정의는 미국 노동부의 정의를 활용한 홍경준(2005)의 연구를 참고하였는데, 조사시점에서 15세 이상의 연령으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실망실업자로 간주되는 가구주의 가구³⁾ 중 가구소득이 절대적 빈곤선의 120% 이하인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빈곤지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소득은 경상소득으로 하였다.⁴⁾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소득정보는 조사시점(t)에서 지난 한 해(t-1)의 것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사시점(t)의 가구정보와 이후 시점(t+1)의 소득정보를 각각 결합한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분석의 논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사에 미참여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6년 모두 응답한 자만으로 균형패널을 만들었다.

- 3) 본 정의를 활용해 근로빈곤을 정의한 연구는 이선우(2010), 김동화(2011), 최옥금(2005), 김철희 외(2013) 등이 있다.
- 4) 대부분의 근로빈곤 연구는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인패널조사자료로 중위소득을 산출해 상대적 빈곤선을 사용할 경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빈곤선 보다 더 낮게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차상위빈곤선을 선택하였다. 차상위빈곤선은 근로빈곤연구에서 많이 활용하는 상대적 빈곤선 중 하나인 중위소득의 50%의 내외라고 알려져 있으므로(이병희 외, 2006) 기존 근로빈곤 연구결과와 비교가 가능하다.

2) 분석 자료 구성

빈곤탈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빈곤주기(poverty spell)⁵⁾를 기초로 빈곤기간에 따른 person year data를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분석경향에 근거해 좌측절단사례(left-censored data)는 제외시켰으며(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Stevens, 1999), 관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우측절단사례(right-censored data)는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복수주기(multiple spell)는 모두 포함시켰다(Allison, 1997; 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이동영,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에 포함된 장애인가구는 총 273개 가구이고 좌측 절단된 사례를 제외한 분석사례는 총 750개 사례이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빈곤탈출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빈곤탈출 여부이다. 그 진입 시점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난 빈곤에 진입한 후 빈곤에서 탈출하여 비빈곤상태로 이행한 경우 종속변수인 빈곤탈출에 1을 부여하였으며,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빈곤을 유지하는 경우 종속변수에 0을 부여하였다.

〈표 1〉 변수의 측정

요인과 변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종속 변수	빈곤탈출 여부	빈곤=0, 빈곤탈출=1	
독립 변수	개인요인	성 별	여성(기준변수), 남성
		연 령	연속변수(세)
		교육수준	초졸이하(기준변수), 중졸, 고졸, 대졸이상
		혼인상태	미혼(기준변수), 기혼, 기타(이혼/사별/별거)
	가구요인	가구원수	연속변수(명)
		장애인가구원수	연속변수(명)
		18세이하 자녀유무	없음(기준변수), 있음
		총취업자수	연속변수(명)
장애 요인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기준변수), 감각장애 정신적장애, 신체내부장애	

5) 빈곤주기(poverty spell)에서 'spell'은 'episode'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개별 가구가 빈곤에 진입한 후 다시 탈피하기까지의 구간을 하나의 'spell' 이라고 한다(Bane and Ellwood, 1986). 빈곤주기는 빈곤분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며 관찰 기간 동안 개별 가구가 여러 차례 빈곤 진입과 탈피를 반복했을 때 복수의 빈곤주기를 가질 수 있다.

요인과 변수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경제 활동 요인	장애정도	중증장애(기준변수), 경증장애
	취업여부	미취업(기준변수), 취업
	종사상지위	비임금근로자(기준변수), 상용직근로자, 임시일용직근로자
	완전취업여부	불완전취업(기준변수), 완전취업
	시간당소득	연속변수(만원)
	직 종	관리전문직(기준변수),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생산직, 단순노무직
	산 업	1차 산업(기준변수) 제조업, 전기·수도·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업, 행정·기타 서비스
빈곤지속기간		빈곤지속기간의 더미변수(년)
빈곤진입시기		빈곤진입연도의 더미변수(년)

(2) 독립변수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크게 개인 요인, 가구 요인, 장애 요인, 경제활동 요인을 분석에 포함시켰다(〈표 1〉 참조). 장애요인 중 업무수행시 타인도움 필요여부는 장애정도라는 의학적 기준 외에 직업적 측면에서 장애정도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제활동 요인 중 '취업여부'는 빈곤탈출시점에서 미취업과 취업으로 측정하였으며 '완전취업 여부'는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미만을 불완전취업, 36시간 이상을 완전취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불완전취업을 기준 변수로 하였다. '시간당소득' 변수는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근로소득을 측정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빈곤탈출 여부가 아니라 빈곤이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사건(event) 발생가능성, 즉 빈곤탈출확률을 분석하기 위해 빈곤주기에 관한 자료와 생명표 분석(life table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빈곤탈출확률(hazard rates)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의 빈곤탈출 확률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률모형인 이산시간위험률분석(discrete-time hazard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산시간위험률분석은 빈곤기간이 비연속적(discrete-time)이며, 특정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모수적 방법(non-parametric mode)의 사건사 분석기법으로, 빈곤의 동태성 분석에서 다수의 연구들은 이산시간 위험률모형을 사용하였다(구인회, 2005; 임세희, 2006; 김은하, 2008; 홍경준, 2004 등).

4. 분석 결과

1) 분석대상의 근로빈곤의 규모와 특성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분석대상의 근로빈곤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2008년 34.2%, 2010년 25.2%, 2012년 23.3%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년간 평균 근로빈곤율은 27.7%다.⁶⁾ 전체 장애인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4.9%, 2010년 20.5%, 2012년 19.2%로 빈곤층 중 평균 21.4%가 근로빈곤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이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인구의 근로빈곤율은 2011년 기준 8.4%이며,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약 3배 정도의 높은 수준이다.

<표 2> 연도별 장애인의 빈곤율과 근로빈곤율⁷⁾

(단위 :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장애인가구 ¹⁾ 빈곤	전체	2,033	2,033	2,033	2,033	2,033
	빈곤(a)	1,145	1,144	1,025	1,028	1,009
	비중	56.3	56.3	50.4	50.6	49.6
장애인가구 ²⁾ 근로빈곤	전체	833	833	833	833	833
	빈곤(b)	285	269	210	196	194
	비중	34.2	32.3	25.2	23.5	23.3
전체인구 ³⁾ 근로빈곤율		8.6	8.6	8.8	8.4	-
b/a*100		24.9	23.5	20.5	19.1	19.2

- 주1) 15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로 만든 전체연결자료 중 최저생계비*120%이하 가구의 연도별 분포임
 주2)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거나 실망실업자로 간주되는 15세 이상 가구주 가구로 만든 전체연결자료 중 최저생계비*120%이하 가구의 연도별 분포임
 주3)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 가구단위 빈곤율이며 15~64세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 장애인고용패널조사(1차~6차년도), 임완섭·노대명(2013), 김태완 외(2012)

- 6)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분석한 이선우(2013)는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근로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결과 근로빈곤율은 2008년 31.38%, 2009년 28.53%, 2010년 25.39%, 2011년 22.02%로 나타났다.
- 7)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될 때 절대적 빈곤은 점차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패널자료 사용에 따른 것인데 장애인고용패널은 불가피하게 매년 표본이탈이 발생되며(2013년 18.3%) 이러한 이탈이 주로 빈곤층에서 발생되므로 근로빈곤층 규모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홍경준(2005)과 김혜련(2007) 등도 패널조사 자료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패널자료가 아닌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율을 추정할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근로빈곤율 및 그 추이는 본 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분석결과를 근거로 장애인가구의 근로빈곤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분석대상자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가구주의 특성은 남성이자 초졸이하의 학력자로서 평균 연령은 51.08세이다. 평균 가족수는 3.13명, 가구내 평균 취업자수는 1.35명이며 장애유형상 신체외부장애와 감각적 장애의 비중이 높고, 중증장애인에 비해 경증장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2008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전체	833 (100.0)	548 (100.0)	285 (100.0)
가구주 성별			
남성	760 (91.2)	509 (92.9)	251 (88.1)
여성	73 (8.8)	39 (7.1)	34 (11.9)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이하	294 (35.3)	167 (30.5)	127 (44.6)
중졸	158 (19.0)	103 (18.8)	55 (19.3)
고졸	282 (33.9)	200 (36.5)	82 (28.8)
대졸이상	99 (11.9)	78 (14.2)	21 (7.4)
가구주 혼인상태			
미혼	44 (5.3)	30 (5.5)	14 (4.9)
기혼	648 (77.8)	440 (80.3)	208 (73.0)
기타	141 (17.0)	78 (14.2)	63 (22.1)
18세이하자녀			
없음	530 (63.6)	358 (65.3)	172 (60.4)
있음	303 (36.4)	190 (34.7)	113 (39.7)
가구주 연령	평균 52.81세	평균 49.85세	평균 51.08세
가구원수	평균 3.10명	평균 3.09명	평균 3.13명
총취업자수	평균 1.59명	평균 1.69명	평균 1.35명
가구주 장애유형			
신체외부장애	555 (66.3)	353 (64.4)	202 (70.9)
감각장애	243 (29.2)	172 (31.4)	71 (24.9)
정신적 장애	4 (0.5)	3 (0.6)	1 (0.4)
내부장애	31 (3.7)	20 (3.7)	11 (3.9)
가구주 장애정도			
중증	176 (21.1)	114 (20.8)	62 (21.7)
경증	657 (78.9)	434 (79.2)	223 (78.3)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774 (92.9)	525 (95.8)	249 (87.4)
실업자	32 (3.8)	15 (2.7)	17 (6.0)
비경제활동	27 (3.2)	8 (1.5)	19 (6.7)

구분	전체	근로비빈곤	근로빈곤
종사상지위			
상용근로자	247 (31.9)	211 (40.2)	36 (14.5)
임시근로자	87 (11.2)	57 (10.9)	30 (12.1)
일용근로자	138 (17.8)	80 (15.2)	58 (23.3)
비임금근로	302 (39.0)	177 (33.7)	125 (50.2)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184 (23.8)	103 (19.6)	81 (32.5)
36시간 이상	590 (76.2)	422 (80.4)	168 (67.5)
시간당 임금	0.78만원	0.88만원	0.54만원

주: 차상위빈곤선(최저생계비*1.2)을 기준으로 함
 자료 : 장애인고용패널조사(1~2차년도)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 비중이 87.4%로 근로비빈곤층 95.8%에 비해 낮은 수치이긴 하나 대부분이 일자리를 갖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지위를 비교해보면, 근로빈곤층 중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불과하며 임시일용직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주당근로시간의 경우 36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에 대해 근로비빈곤층은 80.4%인 반면에 근로빈곤층은 67.5%에 불과하다. 또한 근로비빈곤층은 사무직종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근로빈곤층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1) 빈곤탈출확률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확률(hazard rate)을 빈곤기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빈곤기간이 1년인 장애인가가 빈곤을 벗어날 확률은 56.4%이며, 빈곤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면 36.8%로 줄어들고 빈곤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면 빈곤탈출확률은 28.3%로 더욱 줄어들어 기간이 누적될수록 탈출확률이 감소하며 이 같은 경향은 선행연구와 동일하다.⁸⁾ 그러나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단시간 내 빈곤탈출확률은 전체 빈곤층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빈곤층의 빈곤탈출 연구인 김교성·노혜진(2009)과 홍경준(2004)은 빈곤에 진입한 가구의 60% 이상, 구인회(2005)는 58%, 임세희(2006)는 87.4%가 1년 내에 빈곤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가 5년 후 빈곤을 지속할 확률은 23.2%로, 선행연구에서 빈곤기간이 4년이 지난 후 빈곤이 지속될 확률을 15%내외로 보고한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홍경준, 2004; 구인회, 2005; 김교성·노혜진, 2009). 이러한 결과는 빈곤상태가 일정정도 지속된 이후에도 빈곤상태에 머

8) 이동영(2005)의 연구에서 장애인 빈곤가구(차상위빈곤선 기준)의 빈곤탈출확률은 빈곤기간 1년 후 54.1%, 2년 후 37.3%, 3년 후 36.8%로 나타났다.

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빈곤기간별 빈곤탈출확률

빈곤기간 (년)	분석대상 (명)	빈곤탈출 (명)	우측절단 (명)	누적빈곤 유지확률	빈곤탈출확률 (hazard rate)
1	310	125	52	.5599	.5643
2	133	37	28	.3858	.3682
3	68	15	15	.2901	.2830
4	38	6	16	.2321	.2222
5	16	0	16	.2321	-

자료 : 장애인고용패널 1-6차년도

(2) 빈곤탈출의 영향 요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의 영향 요인을 찾기 위해 이산시간위험률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개인 요인, 가구 요인, 장애 요인, 경제활동 요인을 순차적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먼저 개인 요인 모델(모델 I)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빈곤탈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근로빈곤 장애인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임세희, 2006; 석재은, 2004; 김교성·노혜진, 2009). 연령은 증가할수록 빈곤탈출확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개인 요인 모델을 비롯해 대부분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⁹⁾ 장애인가구의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초졸이하를 기준으로 고졸과 대졸이상의 학력자들의 빈곤탈출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개인요인모델(모델 I)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여부모델(모델IV)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구 요인 모델(모델II)에서는 장애인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총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 상응한다(황덕순, 2001; 금재호, 2004; 2006; 이래혁, 2007; 김안나, 2007). 반면에 가구내 총취업자수가 많을수록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을 분석한 이동영(2005)의 연구에서도 취업자수의 증가는 빈곤이행에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요인모델(모델III)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빈곤율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Gannon and Nolan, 2006; Stapleton et al., 2006; Meyer and Mok, 2006; 김종진, 2007), 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장애 요인보다는 가구 요인이나 이후 기술할 경제활동 요인이 빈곤탈출에 더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에 업무시 타인의 도움 필요 여부는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근로능력 손

9)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빈곤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되나 일부 연구에서 연령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금재호, 2004; 2006; 이병희·정재호, 2002; 임세희, 2006).

실정도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구직과정에서나 근로하는 데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을 탈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5〉 빈곤탈출 이산시간분석결과-1

요인 및 변수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요인	(여성)						
	남 성	.763 ⁺	.461				
	연 령	-.009	.014				
	(초졸이하)						
	중 졸	.353	.294				
	고 졸	.255	.258				
	대졸이상	.366	.364				
(미혼)	기혼	-.056	.442				
	기타	-.024	.525				
가구 요인	총가구원수			-.085	.116		
	장애인가구원수			-.829 ^{**}	.292		
	(18세이하자녀없음)						
	18세이하자녀있음			-.159	.301		
	총취업자수			.690 ^{***}	.173		
장애 요인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190	.235
	신체외부장애					-.233	.541
	(중증장애)						
	경증장애					.031	.246
(업무타인도움필요없음)	업무타인도움필요있음					-.886 ⁺	.514
상 수		-19.277	537.763	-18.468	1053.293	-17.967	515.289
사 례 수		656		656		642	
Log_likelihood		-287.358		-276.455		-285.245	
Model Chi2		201.95 ^{***}		223.76 ^{***}		195.05 ^{***}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주 : 시간에 따른 이행률의 변화는 가변수(years dummies, duration dummies)로 처리하여 통제하였음.

자료 : 장애인고용패널조사(1~6차년도).

경제활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의 변수를 투입해서 각각의 빈곤탈출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 보았다(모델IV). 분석 결과 취업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이 취업을 해도 빈곤에서 반드시 탈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취업은 빈곤이행의 주요 요인이지만 취업자체가 반드시 빈곤탈출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바 있다(김재호, 2004; 2006; 구인회, 2002; 김교성·반정호, 2004; 홍경준, 2005; 임세희, 2006; 이병희, 2011).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취업의 질의 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시간당소득을 중심으로 취업의 질에 따른 빈곤탈출확률 영향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상지위를 세분화시켜 보면 비임금근로를 기준으로 상용직근로는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근로빈곤위험이 높다고 보고한 김재호(2006)의 연구결과와 상응하는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자구책으로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근로소득이 일반 임금근로자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36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완전취업 여부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확보가 중요한데 홍경준(2005)도 근로빈곤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비빈곤층을 비롯해 전체 취업자보다 적다고 보고하였다.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병희(2010)는 노동시장 비활동성(inactivity)이 근로빈곤의 원인이기보다 오히려 높은 실직 위험이 근로빈곤의 주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본 연구의 장애인 근로빈곤층의 취업자 비중과 고용형태, 그리고 빈곤탈출분석의 결과를 비취보면 장애인근로자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근로는 하고 있으나 근로형태가 불규칙적이고 고용단절성이 높은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근로시간을 확보받지 못함으로써 근로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¹¹⁾

<표 6> 빈곤탈출 이산시간분석결과-2

요인 및 변수		모델 IV		모델 V		모델 VI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요인	(여성)						
	남 성	1.113*	.501			.698	.562
	연 령	-.025	.018			-.030	.022
	(초졸이하)						
	중 졸	.583+	.327			.317	.367
	고 졸	.562*	.282			.422	.311
	대졸이상	.837*	.408			.697	.503

10) 경제활동 요인 모델에서 취업여부 변수는 경제활동요인 변수들과 다중공선성이 나타나 개인 요인 등과 함께 분석하였다(모델 IV). 통합모델(모델 VI)에서도 같은 이유로 취업여부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 이와 관련해 더욱 큰 문제는 장애인 근로자의 대다수가 단시간 근로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서 36시간미만 근무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평소일거리가 없어서'가 50.6%로 나타났으며,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이 25.0%로 나타난 반면에 '장애'로 인한 이유는 9.2% 혹은 '본인이 원해서' 6.9% 등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36시간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시간 일하길 원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총 32.1%가 근로시간을 연장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및 변수		모델 IV		모델 V		모델 VI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미혼)						
	기혼	-.213	.560			.558	.650
	기타	.149	.604			.636	.725
가구 요인	총가구원수	-.238+	.139			-.480**	.160
	장애인가구원수 (18세이하자녀없음)	-.863**	.315			-.733*	.352
	18세이하자녀있음	-.408	.352			-.505	.401
	총취업자수	.848***	.208			1.155***	.243
장애 요인	(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343	.257			.076	.288
	신체외부장애	-.232	.586			-.585	.634
	(중증장애)						
	경증장애	.185	.273			-.294	.323
	(업무타인도움필요없음)						
	업무타인도움필요있음	-.781	.552			-.994 ⁺	.598
경제 활동 요인	(미취업)						
	취업	1.105	.721				
	(비임금근로)						
	상용직근로			.956*	.387	1.258**	.475
	임시일용직근로			.744*	.369	1.026*	.439
	(불완전취업)						
	완전취업			.743*	.302	1.056**	.347
	시간당소득			.136**	.045	.131*	.052
	(관리전문직)						
	사무직			-.225	.789	-.421	.845
	서비스및판매직			-.133	.658	-.151	.733
	농림어업숙련			-.062	1.092	-.502	1.186
	생산직			.095	.623	-.233	.695
	단순노무종사자			-.171	.621	-.307	.706
	(1차 산업) 제조업						
전기·수도·건설			-.068	.926	-.068	.981	
도소매숙박음식			.257	.911	.482	.993	
운수창고통신			.484	.972	.413	1.042	
금융·보험·부동산			.474	.956	.603	1.027	
행정·기타서비스			-.363	1.019	-.498	1.114	
			-.075	.902	-.388	.956	
상 수	-18.730	527.828	-30.130	624.820	-28.339	609.082	
사 례 수		642		603		598	
Log_likelihood		-261.838		-260.260		-232.648	
Model Chi2		241.87***		209.45***		261.18***	

주 : 시간에 따른 이행률의 변화는 가변수(years dummies, duration dummies)로 처리하여 통제하였음.

+ $p < .1$ * $p < .05$ ** $p < .01$ *** $p < .001$

네 가지 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분석한 통합모델(모델VI)에서는 개인 요인에 속하는 변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수준은 취업여부와 함께 분석하였을 때 유의하였으나, 중사 상지위나 근로시간 등 취업의 질과 관련한 경제활동 요인과 통합했을 때는 그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요인은 가구원수, 장애인가구원수, 총취업자수의 유의성이 높게 나타나 가구특성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요인에서도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는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며, 업무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빈곤탈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그리고 통합모델(모델 VI)에서는 취업의 질과 관련한 변수인 중사상 지위, 완전취업여부, 시간당소득의 유의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양상과 빈곤탈출의 영향요인을 동태적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인 장애인가구의 6년간 평균 근로빈곤율은 27.7%로 전체 인구 근로빈곤율의 약 3배 정도의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빈곤층 중 근로빈곤층은 21.4%를 차지해 근로빈곤이 장애인 빈곤의 주요한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전체 빈곤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하기 어려우며, 단시간 내의 빈곤탈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가구는 빈곤에 진입한 1년 후에 빈곤탈출확률은 60%를 넘어서는데 반해 장애인가구는 동일 기간에 대해 빈곤탈출확률은 56.4%에 그쳤다. 그리고 선행연구는 빈곤지속확률이 4년 후 15% 내외인데 반해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는 5년 후 23.2%로 분석되어 지속적으로 빈곤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가구 특성은 빈곤의 탈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가구원수 및 장애인가구원수의 증가는 빈곤탈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내 총취업자수의 증가는 빈곤탈출에 유의성이 매우 높았는데, 장애인가구는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보충될 때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상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경제활동요인은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에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개인요인이나 가구요인이 빈곤탈출에 영향을 미치나 대체로 경제활동 측면이 매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주의 취업은 곧 빈곤탈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취업 여부보다는 취업의 질이 빈곤탈출에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빈곤탈출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

간 이상인 완전취업여부도 빈곤탈출에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시간 확보가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근로빈곤은 일자리가 없어 발생하는 실업빈곤보다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취업빈곤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빈곤위험도가 높은 임시일용직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일자리의 안정화를 도모해야만 장애인 근로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안정성과 고용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장애인의 근로빈곤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는데, 임시일용직근로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단절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인 근로빈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된 근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시간이 확보된 일자리에서 일함으로써 근로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더 나은 일자리로 상향이동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증대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장애인고용정책이 취업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도 정책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 근로빈곤의 탈피를 돕고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장애 요인과 관련해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는 빈곤이행에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업무시 타인의 도움 필요여부는 빈곤탈출 분석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는 장애로 인한 제약은 장애인의 구직이나 근로활동에 제약을 주고 근로소득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근로빈곤층 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소득 지원과 취업 지원을 결합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근로하는 장애인 가구의 빈곤위험도는 매우 높으며 일단 빈곤에 처하게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반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은 고용보험을 위주로 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만 노동시장 주변에서 노동시장 안팎을 드나드는 근로빈곤층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본 분석자료인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도(201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비교하면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자의 가입률은 현격히 떨어지는데 가입률이 거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¹²⁾ 이 같은 사회보험 적용

12)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빈곤 장애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가능자와 공공부조 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동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안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교성·노혜진, 2009, “빈곤탈피와 지속기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185-212.
- 김교성·반정호, 2004, “고용상태와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 김교성·최영, 2006, “근로빈곤층의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119-141.
- 김동화, 2011, “근로여성장애인의 근로빈곤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구특성 및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1(2): 163-187.
- 김안나, 2007, “한국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복지정책』, 27: 145-168.
- 김은하, 2008,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특성과 빈곤지위-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4): 5-29.
- 김종진, 2007, “근로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철희·나영선·류기락, 2013, 『근로빈곤층의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태완·김문길·정진욱·강성호·윤상용·이주미·정희선, 2012,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완·윤상용·박지혜, 2010, “장애인 소득이동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사회복지정책』, 37(3): 115-139.
- 김환준, 2013, “가구특성과 빈곤지속기간이 빈곤탈피율에 미치는 영향-지속기간의존성과 표본이질성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연구』, 44(3): 301-322.
- 김혜련, 2007, “우리나라의 소득이동 및 빈곤의 동태적 분석”, 『통계개발원 SRI Issue Paper No. 2007-01』, 통계개발원 경제통계실.
- 금재호, 2004, “취업으로 빈곤극복이 가능한가”, 『경제분석』, 10(3): 72-111.
- _____, 200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9(1): 41-73.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_____,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노대명·최승아, 2004, 『한국 근로빈곤층의 소득 고용 실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67-194.
- 윤상용, 2009, “장애발생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 가구 경제, 고용 및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국제 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장애 소득보장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

54.1%, 32.7%이며, 국민건강보험은 66.4%, 35.7%이며, 고용보험은 62.8%, 31.6%, 산재보험은 60.7%, 28.6%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럼』, 164: 6-19.
- 이동영, 2005,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분석”, 『사회복지정책』, 23: 183-211.
- 이래혁,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 가구유형과 노동시장특성을 중심으로”,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93-116.
- _____, 2011, “근로빈곤의 추이와 동태적 변화”, 『보건복지포럼』, 181: 33-41.
- 이병희·정재호, 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52: 128-150.
- 이병희·이승렬·김주섭, 2006, 『고용과 빈곤의 동태적 분석-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홍경준·이상은·강병구·윤자영, 2010,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우, 2010, “근로빈곤 장애인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연구”, 『제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_____, 2012, “근로장애인의 빈곤 요인에 대한 연구”, 『제4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_____, 2013, “근로장애인의 빈곤 상태 변화에 대한 중단분석: 패널로지 혼합모델의 적용”, 『사회복지연구』, 44(4): 177-197.
- 이성규, 2011, 『한국장애인복지 발달사』, 서울: 집문당.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세희, 2006, “빈곤탈출의 결정요인: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53-277.
- 임재현, 2012,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 결정요인 연구 : 비장애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완섭·노대명, 2013, 『2013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은정, 2007,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 결정요인 연구 : 근로빈곤노동시장의 경로제약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3): 147-174.
- 전광석, 2011,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서울: 인간과 복지.
- 조막래·이순아, 2012, “가구 생계부양형태에 따른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확률 결정요인”, 『지역발전연구』, 11(2): 181-214.
- 최무현, 2005, 『한국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최경수, 2007, “한국의 빈곤기간(poverty spell) 구조”, 『제8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 _____, 2013,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2010년 장애인통계』.
- _____, 2013, 『2013년 장애인통계』.

- _____, 2014, 『2014년 장애인통계』.
- 황덕순,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1(2): 31-59.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_____, 2005,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한국사회복지학』, 57(2): 119-142.
- Allison, P. D., 1984, *Event History Analysis: Regression for Longitudinal Event Data*, London: Sage Publications.
- _____, 1997, *Survival Analysis Using the SAS System: A practical guide*, NC: SAS Institute.
- Bane, M. J., and Ellwood, D. T., 1986, “Slipping into and out of poverty: The dynamics of spell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1(1): 1-23.
-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EFILWC), 2004, *Working Poor in the Eutopean Union*,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Gannon, B., and Nolan, B., 2006, “The impact on disability transition on social inclu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64: 1425-1437.
- Mckernan, S. and Ratcliffe, C., 2005, “Event that trigger poverty entries and exits”, *Social Science Quarterly*, 88: 1146-1169.
- Meyer, B., and Mok, W., 2006, “Disability, earning, income and consumption”, *Harris School Working Paper, series 06.10*.
- Stapleton, D. C., O'Day, B., and Livermore, G. A., 2005, *Dismantling the Poverty Trap: Disability Policy for the 21st Century*, Rehabilit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NY: Cornell University.
- Stevens, A. H., 1994, “The dynamics of poverty spells: Updating Bane and Ellwood”, *American Economic Review*, 84(2): 34-37.
- _____, 1999, “Climbing out of poverty, falling back in”, *Journal of Human Resources*, 34(3): 557-58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verty–Exi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Sim, Jinye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KEAD)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poverty transition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from a dynamic perspective.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Year 1-6), included the households with a disabled head of household. The working poor were defined as the household of which income fell below 120% of the absolute poverty line among the households just described.

As results, The 6-year mean poverty rate for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included in the analysis was 31.4%, approximately three times of the poverty rate of the total population and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have greater difficulty with poverty exit once having fell into poverty than all households living in poverty. And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y factor was the key determinant of in-work poverty. In addition, employmen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did not lead straight to poverty exit, and the quality, rather than the status of, employment was the key determinant of poverty exit.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decent jobs, expand the social safety net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and establish poverty reduction measures for each class of the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to exit from poverty.

Key words: working poor with disabilities, poverty dynamics, poverty exit, life table analysis,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poverty determinants

[논문 접수일 : 15. 07. 16, 심사일 : 15. 09. 11, 게재 확정일 : 15. 10. 16]